

【서 평】

민주주의적 개혁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대안들에 관한 3권의 책 소개*

Politics by other means, Benjamin Ginsberg and Martin Shefter,
1999. Diminished Democracy: From Membership to Management in
American Civic Life, Theda Skocpol, 2003, Voting with dollars, Bruce
Ackerman and Ian Ayres

안 병 진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과거 87년 한국의 민주주의적 이행의 키워드가 직선제 개헌이었다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키워드는 정당의 예비경선이었다. 소위 국민경선제로 불린 이 제도의 도입은 그간 보스 중심의 파벌 정치 구도에 식상하고 정치에서 이탈되었던 많은 유권자들을 다시 정치로 진입시킨 바 있다. 이제 2002년 말의 대선이 일년이 채 지나지 않아 예비경선제나 이와 관련된 미디어 정치의 실현, 지구당 폐지같은 아젠다들은 벌써 많은 이들의 머리 속에 당위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새해 초라는 시간적 특성이 가지는 장점은 이렇게 숨가쁘게 진행되는 '속도 사회'의 흐름으로부터 잠시 한 발 물러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동적 변화를 깊이있게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유리하다는 점이다. 긴즈버그와 세프터의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는 책은 이러한 정치개혁 아젠다들이 당위 속에서가

* 이 3권의 책에 대한 서평은 2월말경 출간이 예정된 본인의 줄고, 『영구적 캠페인의 정치: 노무현과 클린트 정부의 새로운 정치실험과 민주주의의 미래』, 삼우반, 2003 의 내용에 기반한다.

아니라 미국 역사의 전개라는 맥락 속에서 어떻게 발명되고 작동하였는가를 때로는 도발적이고 때로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돌아보고 있다. 또한 스카치폴과 애커만 및 아이레스는 그간의 미국 정치 전개 방향의 한계에 대한 대안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창의적인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은 텍스트에 대한 분석적인 서평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이 책들의 핵심 내용에 대한 소개이다. 하지만 얼핏 보면 서로 별개의 주제인 것처럼 보이는 이 책들이 기본적으로 미국 정치의 사회적 소통력 확대라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함께 소개하는 것으로도 미국 정치 지형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폭넓게 사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긴즈버그와 세프터의 핵심 주장은 미국 정치가 선거라는 장을 통해 정치갈등이 전개되는 시대에서 선거 이전에 의회나 검찰등의 일상적 제도 속에서 상대 정치 진영을 패퇴시키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시대로 이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지형의 변화와 관련하여 긴즈버그와 세프터의 미국 역사에 대한 성찰은 19세기와 20세기 초 각 정치세력들이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치열한 대중적 동원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비록 선거에서 보스 정치에 의한 투표 사기행위도 빈번하였지만 이러한 상호간의 치열한 동원 경쟁의 결과 19세기말에는 대선에서의 선거 참여율이 유권자의 80%를 기록하였고 중간선거에서도 거의 70%에 육박하였다고 그들은 지적한다. 이러한 선거 정치는 과거에 칼 맑스도 지적한 바 있듯이 각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의 세력 정도를 냉정히 타산해 보고 이후 발전적 모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를 향해 각 정치 보스들이 이끌었던 대중적 동원의 시대는 이들 보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일련의 진보주의적 개혁 운동에 의해 막을 내린다. 가장 결정적인 시기는 1960년 이후 민주당의 정당 개혁 운동이다. 그 직접적 계기는 민주당내 대선 후보 지명을 둘러싸고 발생하였다. 당시 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인 린든 존슨은 예상하지 못

한 베트남전의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재선 출마를 포기하고 그 이후 민주당내의 파벌 보스는 밀실 결정으로 험프리 후보를 대선 후보로 지명하게 되었다. 하지만 민주당내 진보파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시카고에서 열린 전당 대회는 극심한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이후 민주당은 맥거번-프레이저 위원회라는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지명의 과정에 대한 파벌 보스 및 매파노동관료층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고 예비선거제도 등의 정당 개혁을 통해 사회세력들과의 소통력을 회복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이후 공화당 당기구들의 개혁으로도 이어졌다. 이러한 정당 개혁은 기존 정당 엘리트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반대로 후보자들의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왜냐하면 후보자들은 정당의 엘리트들과의 합종연횡의 필요가 줄어들고 반대로 예비경선 과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대의원들에게 호소할 필요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즈버그와 세프터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사회와의 소통력 회복을 목적으로한 진보주의자들의 개혁은 정당의 기존 보스들의 몰락 뿐 아니라 정당 기능의 퇴조라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물론 예비경선 제도의 결과로 보다 다수 유권자들의 참여가 증진되며 기성 정치에 물들지 않은 참신한 신인이 대거 등용될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비경선의 주된 참여자가 중산층 중심으로 흐르게 됨에 따라 중산층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크게 강화시켰다. 이들은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간 하층 계급을 동원하던 기제로 작동해온 정당에 의존하는 대신에 각 후보자 선거운동 조직을 중심으로 중산층 중심의 유권자들과의 직접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들이 유권자들과의 접촉에 주로 동원하는 미디어 정치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 선거에서의 대중적 동원의 노력은 미디어 정치 시대에 걸맞은 초대 받은 유권층만을 겨냥하는 안전한 정치 마케팅으로 대체되었고 유권자의 절반이 선거에 불참하는 속에서 이 나머지 절반을 둘러싸고 정치적 경쟁이 극도로 과열되기 시작한다.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를 배태하는 비육한 토양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미디어 정치의 등장은 정책의 실제적

내용보다는 누가 더 드라마틱한 스펙터클을 제공하는가의 싸움으로 변질되어 내용이 텅 비어 있는 이미지 선거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만큼 이러한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선거 전문가에 의한 대중 조작의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정당은 기존 정당 엘리트 중심에서 선거 전문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당으로 탈피하였다.

긴즈버그와 세프터의 설명에서 아쉬운 것은 다른 수단의 정치를 만들어 내는 정치적 경쟁의 과열화의 배경에 대한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비록 그들은 이러한 정치적 경쟁의 극단화를 제한된 유권자층을 둘러싼 투쟁의 필연적 결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만으로 이를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Cameron(2002)등의 학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경쟁의 과열의 원인을 둘러싸고 엘리트 수준에서의 이념적 대립의 격화 등으로 설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 영역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축적된다면 긴즈버그와 세프터가 다루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심층적 배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비록 체계적인 이론화에는 성공하고 있지 못하지만 긴즈버그와 세프터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책에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영역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 중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사법체계의 정치화이다. 이를 제프리 루빈이란 법률분석가는 “형사사법체계의 정치화와 정치체계의 범죄화”라고 부르기도 하였다(클린턴 2003, 316). 흥미로운 것은 힐러리와 클린턴 대통령을 집권 기간 내내 괴롭혔던 이 형사사법체계 정치화의 한 가운데에 있는 특별검사제는 긴즈버그와 세프터가 지적하고 있듯이 사실상 닉슨 시절 민주당 주도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1978년 민주당 주도 의회는 닉슨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조사하는 아치볼드 콕스(Archibald Cox) 검사를 해임조치(이는 소위 악명높은 토요일밤 대학살로 불리웠다) 하자 이에 맞서 특별검사 제도를 만들었다. 이 과정은 의회와 리벌럴 성향의 언론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노력해온 닉슨에 맞선 민주당과 언론의 암묵적인 정치연합의 성

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후에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는 많은 선정주의적 언론들은 공화당과 간접적으로 손을 잡았다). 이 특별검사제도는 매 5년 마다 한시적으로 갱신되는데 1994년에 다시 효력을 발휘하였다. 의회는 만약 자체 조사 결과 대통령이나 고위직의 행정부 관리가 불법적인 행위에 관련되었다고 볼 근거가 있으면 특검 임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특별검사 조항은 물론 의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의회에서 당시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목적은 제왕적 권력을 가지는 대통령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일단 특검이 임명되면 이는 어떠한 연방, 주 검사보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특검은 이미 발생한 특정한 범죄를 수사하는 목적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사실이다. 대신에 특검은 범죄가 저질러졌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모호한 임무의 범위는 결국 특검이 애초 의회가 관심을 가졌던 의혹에만 국한될 필요없이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특검은 다른 검사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기금에 의해 뒷받침된다. 의회에서 기금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한 의회가 강렬히 열망하는 조사 사안에 대해 막대한 기금의 뒷받침을 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클린턴 시기에 들어와서 폭로(Revelaton), 조사(Investigation), 기소(Prosecution)라는 RIP 전술이라 긴즈버그와 세프터가 부른 사법체계 정치화의 첫 희생물은 화이트워터 사건으로 시작된다. 클린턴 부부는 아칸소 시절에 부동산 투기의 실패로 큰 손해를 본적이 있는데 이때 동업했던 짐 맥두걸이라는 자의 불법 행위 때문에 그들은 구설수에 오른다. 특별검사로 임용된 로버트 피스크(Robert Fiske)와 후임인 케네스 스타(Kenneth Star)는 의회에서 지원해주는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뿌려가며 이 사건에 매달렸다. 예를 들어 의회는 4년간에 걸쳐 이들 특검에게 4천만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밀어주며 클린턴의 부정 행위를 발견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매우 보수주의적이고 클린턴을 정치적으로 혐오했던 스타 검사는 공화당과의 협력 속에서 특검이 가지는 모든 불명료한 권한들을 최대한 활

용하여 조사의 범위를 정치적으로 확장하였다. 화이트워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소집된 특검은 이제 모니카 르윈스키 섹스 스캔들로 확장되었다. 이 사건은 드리지 리포트라는 인터넷 황색 저널리즘에 먼저 보도되고 이를 신보수주의 핵심인 윌리엄 크리스톨이 ABC 일요일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 미국 전역에 확산시켰는데 이는 이후 스캔들 시장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주류 신문까지 취재 경쟁으로 돌입하게 만들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결국 이 사건을 통해 클린턴을 탄핵하기 위한 공화당의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는 실패하였다. 하지만 이는 미국 정치의 신뢰도에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내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과거 미국의 건국 시조들이 예견한 것과 달리 이 탄핵 정국에서 당파적으로 행동한 것은 그들이 경계한 민중들이 아니라 반대로 의원들이었다는 점이다.

킨즈버그와 세프터는 이러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폐해를 낱알이 드러낸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제한된 유권자층을 둘러싼 과열된 경쟁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심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중산층 중심의 정치에 편안하게 젖어 있는 주류 정치인들이 그간 정치에 소외된 사회적 층들을 대거 동원하는 위험을 감수할 지는 다소 회의적인 전망으로 끝을 맺고 있다. 사실 프록케(David Plotke, 2002)라는 정치학자도 예리하게 지적한 바 있듯이 이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되기 쉽다. 즉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70년대 이래로 불확실하고 비용만 많이 드는 정치에 소외된 층의 적극적인 투입보다는 전략적 선택으로서 마케팅을 통한 제한된 타깃층만 안전하게 공략하는 경향을 띠어왔다. 이러한 정치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기존 정치에서 소외된 유권자층들 사이에서 정치 체도에의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을 만들어낸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하에서 유권자들의 정치 기피는 바로 자신들이 기피의 이유로 내세운 열정과 반응성을 결여한 정치 구조를 고착화시킨다(David 2002, 56). 이는 결국 미국의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보다는 현재의 낮은 정치 신뢰의 상태를 지속시키고 과열된 경쟁 속에서 유동적이고 간헐적 위기를 부단히 재생산해 가능성을 가진다.

긴즈버그와 세프터가 다소 비판적 전망에 기울어지며 책을 마무리 짓고 있는 반면에 비판적 현실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창의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음의 두 명의 학자들의 고투는 주목할만하다. 미국 학계에서 언제나 이론과 현실의 접점에서 선구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수행해온 스캇치폴과 애커만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정치의 사회적 소통력의 확대의 중요성이라는 긴즈버그와 세프터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이를 대안적 지향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면상 이들 아이디어의 핵심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스캇치폴은 긴즈버그나 플롯케가 지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하는 고민을 진행하고 있다. 그녀의 관심의 초점은 제도권 정치의 타락에 주목한 긴즈버그나 세프터와 달리 제도권 외곽의 대중적 단체의 타락 혹은 이를 비하하는 경향이다. 그녀는 최근의 단행본(2003)에서 미국의 주류 여론은 각 대중단체들을 비하하는 관점에서 이익단체라 부를 뿐 이들 대중적 단체의 목소리는 미국의 전국적 정치의 장에서 가시화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대로 온갖 미디어에서는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시민없는 시민단체, 로비스트, 연구소, 교수들이 필요이상으로 과대 대표되고 있다고 그녀는 지적한다. 스캇치폴은 이들의 지나치게 과대 대표된 목소리를 줄이고 그것이 좌든 우든 대중적 뿌리를 가진 단체의 목소리가 보다 가시화되어 아젠다 설정과 입법 과정에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이들은 의원들이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다. 하지만 스캇치폴이 구상하는 것은 단지 이러한 대중적 단체들이 사진찍기에 동원되거나 의회 청문회에 일회적으로 참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사전 아젠다 설정 단계에서 각 대중적 조직의 대표자들은 각 지역차원의 회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지역 회합이든 인터넷을 통해 정식화하게 하고 이를 정치권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속에서 쌍방향으로 투영시켜냄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 보다 본격적인 입법을 위한 논쟁의 단계에서 의원들과 방향이 일치되는 단체들은 대중적 동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스캇폴이

보기에 과거 힐러리가 주도한 의료보험 개혁의 실패는 단지 우익들과의 정치광고 전쟁에서 밀린 것과 같은 정치 기법상의 실패라기보다는 이러한 대중적 뿌리를 가진 단체들과의 사회적 소통노력의 미비에서 기인한다. 이는 심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힐러리의 계획이 단순한 엘리트뿐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참여에 기반한 '건강의회'(health parliament) 같은 조직을 창출해야 함을 주장했던 벤자민 바버의 문제의식과 일치되는 것으로 보인다(1984). 최근 한국에서도 학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 심의 민주주의란 시민들간의 심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시민 개인들이 자신들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다양한 시각과 이익들을 상호 이해와 공동의 행동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부단히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김의영 2003, 101)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각자의 이익의 표출과 절충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공동선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나가는 것이다.

스캇폴은 이러한 대중적 뿌리를 가진 단체들에 기반한 심의민주주의 관점이 민주주의의 질을 확대하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더 나은 정책은 정부 정책 심의 과정에 단지 회원 네트워크를 참여시키는 결과만이 아니다. PTA(학부모회의)나 노조 강당 혹은 지역환경 클럽에서의 토론이 토론에 그치지 않고 의회(혹은 시의회나 주의회)에 보내는 보고서로도 구체화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실감할 때 사람들은 토론에 참여하는 가치를 보다 더 느낄 것이다. 만약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젠다를 수립할 때 대중적으로 뿌리를 가진 결사체들의 가시성과 영향력을 최소한 비즈니스 로비스트, 여론조사가, 전문가 위주의 연구소, 애드버커시 그룹의 수준만큼 높인다면 이 조직들은 이 조직이 끝어들이고 참여시키고자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보다 더 유의미하게 다가올 것이다.”(2003, 290)

스캇치폴이 풀뿌리 시민운동 단체의 영향력 확대라는 초점하에서 정치의 사회적 소통력의 확대를 고민하였다면 애커만과 아이레스는 선거 정치 자금법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소통력 확대를 접근하

고 있다. 그들의 도발적 대안의 핵심은 백지신탁(blind trust) 기부제와 가칭 '애국 카드'(patriot card)제도의 혼합을 통해 사회적 기반이 있는 정치인에게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선 '애국 카드'(patriot card)의 신설을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마치 모든 시민들에게 일인 일표의 권리가 주어져야 하듯이 모든 시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기부할 수 있는 동등한 기초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의회는 모든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구좌에 50달러의 종자돈을 송금한다. 이러한 개개인들이 행사하는 종자돈의 총액은 거대 기부자들의 돈의 영향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구좌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 아이디어는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후보에게는 그만큼 종자돈이 비례하여 물리게 되어 이들의 입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 이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난 2000년 미 대선과 2002년 한국 대선에서 사회적 기반을 가진 존 맥케인 공화당 후보와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온라인을 통한 자발적 소액 기부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만약 이것이 제도화된 속에서 양 선거가 치러졌다면 이라고 가정해본다면 미국에서 금권선거의 혜택을 크게 힘입은 부시 현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혹은 한국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로 치명상을 입는 가능성이 적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애국 카드만으로만 기부를 제한한다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약을 지적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애커만 교수는 이러한 동등한 권리에 부가하여 일정한 제한된 상한선하에서의 개인의 자유로운 기부를 허용한다. 단 이때 그는 그간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원칙에 대해 도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투명한 공개가 항상 절대 선은 아니다. 그는 반대로 비밀투표제가 그간 근대 초기 미국 정치보스(머선이라 불린다)들의 표 팔아먹는 행위를 근절시킨 민주적인 쾌거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정치보스들에게 투표했다고 말하면서 투표소에 가서는 다른 이에게 투표하면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정치자금 내역을 투명화시킬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백지신탁에 기부하여 누가 얼마나 금액을 기부했는지 알 수 없게 하

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이익단체나 부자들의 금력에 의한 영향력 행사를 감소시키자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아이디어의 현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될 수는 있겠지만 정치의 사회적 소통력을 높이는 관점 하에서 모두가 전제하는 투명성, 공개성의 상식을 도발적으로 뒤집는 그들의 발상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세 권의 책들의 기본 아이디어를 소개하였다. 이 세 가지 책들은 미국 정치 개혁에 대한 관습적인 아이디어들에 도발적으로 도전을 던지며 새로이 사회적 소통력을 회복하는 정치를 꿈꾸고 있다. 사실 한국의 경우에도 정당의 개혁과 미디어 정치의 도래, 정치 경쟁의 과열화 및 다른 수단의 정치의 만개는 긴즈버그나 세프터의 책의 내용이 낯설지 않게 하고 있다. 더구나 선정주의적 언론의 수준을 뛰어넘어 적대적으로 개혁적 정치인에 대한 다른 수단의 정치를 주도하는 거대 보수 언론 주도의 미디어 환경은 더욱 과열된 정치전쟁으로 비화되어 많은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정치 환경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를 치유하고자 제도권 정치를 중심으로 내놓는 제반 개혁의 방안들이 가지는 시야의 협소함들이다. 우리에게도 기존 정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며 도발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스카치폴과 애커만등의 열려있는 사고가 더욱 절실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